



서동의 로맨스는 허구였을까?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
(鎭山 彌勒寺址 石塔) ▶2면

현대불교

나쁜 말 · 험한 말을 하지 말라.
악담은 돌고 돌아 고통을 몰고 끝내는
나에게 되돌아 온다.
- 법구경 -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 868호 2011년 12월 28일 수요일 (음력 12월 4일 · 불기 2555년 · 주간)

“종단 시스템 이젠 바꿀 때”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 대토론회서 기조 발제

종파불교 벗어나 회통불교로
종명 등 신중히 검토해야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이 조계종단의 혁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하며 종파불교적 사상적 정체성과 낙후된 교단 운영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응 스님은 종단이 1월부터 매월 실시하는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토대로 진정한 자성과 쇄신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12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마련된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12월 대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섰다. 이날 스님은 11번의 걸친 토론회를 정리하며 '한국불교 중흥의 길을 향하여'를 주제로 발제했다.

현응 스님은 발제에서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명칭의 적합성 종지에 대해 체계적이고 현실적 대응 방안으로서 사회적 자비실현 강화, 종단 운영 시스템의 전면 개편 등을 촉구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조계'라

는 명칭이 선불교의 특정 가문만 표현하고 있으며, '○○종'이라는 이름은 종파불교의 하나로 비취질 수 있다. 한국불교가 중흥하고 세계 속에 교화를 넓히는 상황에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현응 스님은 "교단의 명칭을 '○○종'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종(宗)'은 사상적 특성을 뜻하는 말이며 과거 중국·한국·일본 불교사에서 '○○종'은 교단의 명칭이 아닌 불교의 특정교파이나 특정 선사의 전통을 뜻했다"고 말했다.

현응 스님은 "오늘날 한국불교가 중흥하고 세계 속에 가르침을 퍼기 위해서는 선불교의 뜻만 표방할 수 없다. 자성과 쇄신 결사의 일환으로 종단적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공론화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지금의 종지가 간화선만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시대 이전의 조계종은 선종가풍을 뜻하는 용어였지만 오늘날은 교단의 명칭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선 수행의 여러 방법론 중 하나인 간화선을 마치 교단의 종지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스님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종단 시스템은 규모는 커졌지만 내용이 부실하며 역동성은 있지만 방향이 없다. 대책을 세우고 사부대중이 종단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불교 중흥의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스님은 ▷중앙종무기관의 효율적 행정 시스템 구축 ▷지자체 행정단위에 대응하는 교구제도 개편 및 북한 포교위한 특별교구 설립 ▷비구니 스님의 역할 강화 ▷전문 종무원제도 신설 ▷재가불자 활동 적극 지원 ▷젊은 출가자 확보 위한 종단풍토의 현대화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응 스님 발제 후 객석에서는 종단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주문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서울 구룡사 신도라고 밝힌 한居士는 "종단을 투명하게 운영해서 불자들의 재정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게 해야 한다. 또한 사찰 및 종단 운영에 재가 불자 등 전문가를 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스님의 발언이 보도된 뒤 교계에서는 종명 변경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 중이다. 불자들은 인터넷 신문에 댓글을 게시하면서 서로 다

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조고각하'라는 네티님의 한 불자는 "중차대한 발언을 교육원장이 여과 없이 발언한 것은 의도가 의심스럽다. 종회에서 거론되는 것이 순리다"고 지적했다.

네티님 '사이비'는 "조계종이 누가 만든 것인데 마음대로 바꾼다는 것이나. 역대 선조사님들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통곡 할 노릇이다"고 말했다.

반면 현응 스님의 발언을 지지하는 불자들은 종단의 변화를 통해 조계종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티님 '수미산정'은 "직지인신 건강성불 깨달음에 수행에만 머무는 불교로는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 수행과 자비, 사회적 실천의 보살행으로 보다 큰 불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기조에 동의한다. 사회적 역할을 위하여 운영 시스템을 바꾸어라"고 말했다.

네티님 '불자'는 "교단 명칭 문제와 종지 문제를 거론 했다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 것이다. 그것은 회통불교, 교육의 현대화, 다양한 수행법 인정, 권위주의 탈피 등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노래로 정토세계를 만듭니다” 대한불자수회(회장 나은하)가 12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창립21주년법회 및 축하공연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국제불교지도자협회장 목탁 스님, 흥천사 조실 동봉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여 명이 함께 자리했다. 나은하 대한불자수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음성포교의 선두주자가 돼 그늘지고 소외된 곳, 젊은 층 포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나은하 회장은 ▷불자수회 글로벌 진출 ▷산사음악회 이문화 ▷원로불자기수 노후복지시설 설립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글=이은정 기자 soe84@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남북 관계 흔들림 없어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불교계 '조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불교계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조계종은 21일 애도문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애도문에서 “급작스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지속돼야 하며, 상생과 공존의 원칙으로 함께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를 발원한다”고 밝혔다.

불교시민사회도 20일 논평을 발표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조의를 표명했다. 불교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정중한 조의를 표하며, 슬픔에 빠진 북한 동포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앞장서 온 조국통일평화불교협회(회장 법타, 이하 평불협)도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에 전문을 22일 발송했다.



평불협은 전문에서 “평화통일이 앞당겨지도록 남북, 불자들이 더욱 합심, 협력, 정진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자승 스님 등 7대종교지도자와 회동을 갖고 민간·종교차원에서 대응을 논의했다.

박기범 기자



성도제일로 시작하는 2012년

2012년 새해는 부처님 성도제일로 시작된다. 2500년 전 보리수 밑에서 부처님이 되신 그 날을 기리기 위해 전국의 사찰은 철야정진과 특별법회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12월 21일 서울 조계사를 찾은 불자들이 등을 달며 희망의 새해를 서원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한국불교 중흥 위해 1년간 이어진 대장정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년 간의 한국불교중흥대토론회가 한국 불교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바람직한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자승 스님은 12월 21일 열린 대토론회에서 종합 의견을 전달했다. 스님은 “이번 토론회는 종단이 한국

불교의 문제점을 스스로 드러내고 해결과 발전의 책임자가 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성과 쇄신 결사의 길을 찾겠다는 공심(公心)과 원력(願力)의 주춧돌을 세운 것이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대토론회에서 수렴된 방향과 실천과제들이 승가교육의

현장에서 전범 포교의 현장에서, 그리고 사회와 문화의 현장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실현되기를 바란다. 토론회를 계기로 불교사상과 가치가 사회와 중생의 현장에서 회향되는 문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2011년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대토론회 주제별 분류

한국불교의 이념과 가치	사회와 국가적 차원에서의 한국불교의 역할	종단제도와 운영의 과제
한국불교의 현재적 성찰과 나아갈 방향 (1월)	한국불교 교단과 국가 (2월)	출가와 재가의 역할을 찾다 (7월)
현대사회에 구현해야 할 불교적 가치-종단 5대 결사를 중심으로 (3월)	생명·생태문명과 한국불교 (4월)	1700년 불교문화 어떻게 보존 활용할 것인가 (8월)
현대 명상문화와 한국 선(禪)의 과제 (9월)	한반도 평화·통일문명과 한국불교 (5월)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교구의 역할 (10월)
조계종지의 현대적 구현 (11월)	사회정의 실현과 불교의 자비실현 (6월)	

신상품 LED인등·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능인항당
능인항당의 침향전문점
침향갤러리
침향복합물·침향염주·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맞은편)
본사 02-3663-6777 www.nihwa.com

교사직무연수 : 경기교육 2011-269

겨울방학 교사직무연수 모집

교실의 행복

열린마음으로 행복한 교실을 만들고자 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입니다

NAVER 교실의 행복

모집대상 | 전국 유·초·중등 교원 및 교육 전문직 종사자 전체
교육일정 | 2012년 1월 9일~11월 13일(금) (09:00~16:00, 5일간 - 총 30시간/2학점 인정)
모집인원 | 선착순 30명 모집기간 | 2011년 12월 30일(금) 수강료 | 7만원
신청방법 | 네이버블로그 “교실의 행복” / www.hansi.org / hansa@phanmaum.org 로 신청 가능
문의 | (재) 한미음선원 한미음과학원 031-471-6926~7 * 월요일 휴무

868호 CONTENTS

아두 2011 2·3
올해의 10대 뉴스
대장경천년의 해 결산

현장속으로 5
인사동 자비나눔 행사
108산사순례회·중앙신도회



종합 6
상월조사탄신 100주년 기념대제
템플스테이사업단 해외연수

종합 7
창원 성주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등 보물 지정
허우성 '불교평론' 편집위원장

대한불교원효종재교부공고

귀의삼보하옵고,

종도님들의 법적 청안하심과 하시고자 하는 제반일들이 부처님의 자온으로 원만회향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본 종단은 각 신문사를 통하여 수차례 재교부공고를 하여 현재까지 등록하신 종단소속원을 잠정적으로 집계하였습니다, 하오나 아직 재교부를 받지 않은 종도들이 다수 있어 이에 중무행정의 질서를 재정비하고 확립하기 위하여 재교부 공고를 하오니 기간내에 재교부 신청을 하지 않은 종도들은 공고에 응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종무원을 경유해 접수된 서류는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격회복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범 위 : 사암등록증, 주지 또는 대표임원 임명장, 승려증 또는 신분증
- 접수기간 : 1차 접수기간 : 2555(2011)년 12월 30일 금요일 (2011년 12월 30일 우체국 소인(접수)분까지 유효)
2차 접수기간 : 2556(2012)년 2월 29일 수요일 (2012년 2월 29일 우체국 소인(접수)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각 교구종무원
- 문 의 처 : 02)735-0501, 0502

총 무 원 장 향 운 합 장
심 의 위 원 장 운 오 합 장
심 의 위 원 일 룬, 마 명, 상 목, 자 성, 범 일, 성 암 합 장